

울산지역 첫 대의원투표 김한길 1위

■ 민주통합 6·9전대 당권레이스 본격 시작

이해찬 4위…내일은 광주·전남

민주통합당 대표를 뽑는 6·9 전당 대회 당권레이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 대의원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강력한 당대표 후보였던 이해찬 후보는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이박(李朴)연대' 역풍으로 4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한길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시당 대의원대회 결과, 총 195명이 투표(1인 2표)에 참석한 가운데 103표를 획득, 8명의 후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에 이어 2위는 61표를 얻은 추미애 후보가, 3위는 52표를 획득한 우상호 후보가 각각 차지했다.

강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됐던 이해찬 후보는 불과 48표를 얻는데 그쳤으며 뒤를 이어 정세균과 강기정 후보(40표), 손학규와 조정식 후보(38표), 정동영과 이종걸 후보(33표), 원외 문용식(15표) 후보가 5~8위를 기록했다.

이해찬 후보의 이 같은 성적은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역할분담론에 대한 후폭풍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울산이 친노무현 진영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런 만큼 당심은 인위적인 친노(친노무현)계의 당 운영과 장악에 반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았던 김한길 후보는 폭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대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울산에서의 승리를 이번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이번의 시작일뿐이라 고 생각한다"며 "민심과 당심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대회 투표에 앞서 열린 연설회에서 8명의 후보는 일제히 민주당의 4월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12월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 책임 자임을 자처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를 제외한 7명의 후보는 '이박 연대'가 당권을 둘러싸고 담합을 하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김한길 후보는 "힘있는 사람이 나는 당대표 할테니 당신은 원내대표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박 연대'라는 담합 때문에 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이해찬 후보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